

긴급사태선언 등으로 4개월 만에 악화

~ 인구 유동 억제로 인한 영향이 개인소비와 그와 관련된 폭넓은 업종에 파급 ~

(조사대상 2만 3,724사, 유효회답 1만 1,242사, 회답율 47.4%, 조사개시 2002년 5월)

조사결과 포인트

- 2021년 5월의 경기 DI는 전월 대비 0.8포인트 감소한 37.5로 4개월 만에 악화되었다. 국내경기는 감염 확대 방지 대책으로 인구 유동 억제를 도모하여 4개월 만에 악화되었다. 향후는 하방리스크도 많아 일시적으로 악화되나 서서히 상향해갈 것으로 보인다.
- 10개 업계 중 『건설』 『제조』 등 8개 업계가 악화되었다. 많은 업종에서 목재 및 철강 등의 재료 부족, 가격 급등으로 인한 영향이 나타났다. 또한 긴급사태선언·만연방지 등 중점조치의 연장, 대상지역 확대도 있어 「료칸·호텔」 「음식점」 과 같은 개인소비와 관련된 업종은 저수준에서의 추이가 계속되었다.
- 『훗카이도』 『츄고쿠』 『큐슈』 등 4개월 만에 10개 지역 모두가 악화되었다. 지역간에서 체감경기의 양극화가 진행되어 지역간 격차는 5.0포인트로 다시 확대되었다. 긴급사태선언 및 만연방지 등 중점조치 지역확대의 영향이 큰 폭으로 나타났다. 규모별로는 「대기업」 「중소기업」 「소규모기업」 이 4개월 만에 모두 악화되었다.

< 2021년 5월의 동향 : 상향경향은 일시 정지 >

2021년 5월의 경기 DI는 전월 대비 0.8포인트 감소한 37.5로 4개월 만에 악화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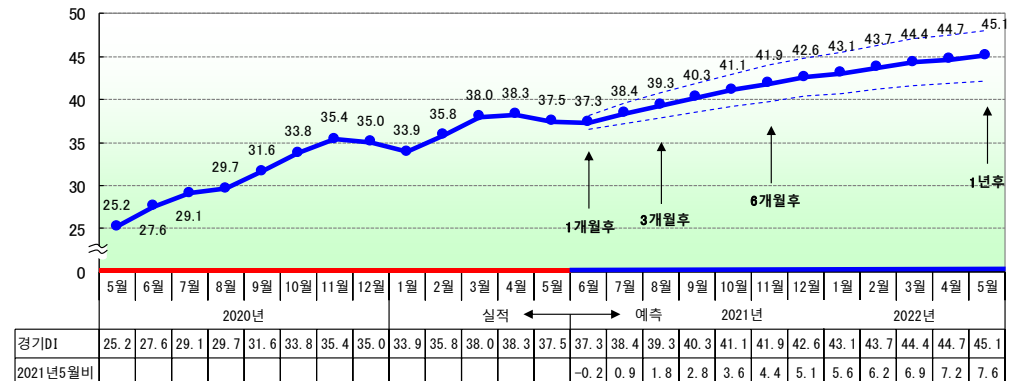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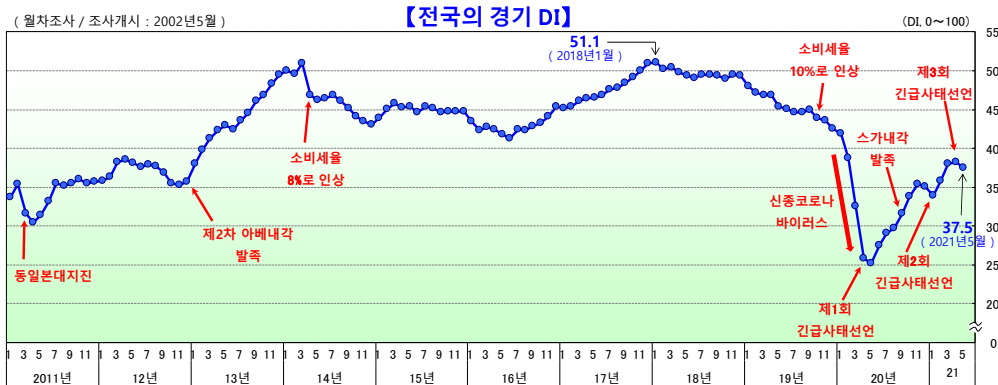
5월의 국내경기는 긴급사태선언 및 만연방지 등 중점조치의 기간연장과 대상지역 추가·확대 등으로 인한 인구 유동 억제를 통하여, 경제활동에 크게 제한이 걸린 가운데 추이이다. 휴업 및 영업시간 단축 등이 개인소비의 하락요인이 되어 관련된 소재 산업을 포함한 폭넓은 업종에 악영향을 미쳤다. 게다가 연료가격의 상승이 코스트 부담을 높인 한편 반도체 부족으로 인한 일부 기업의 공장 가동정지 등도 마이너스 요인이 되었다. 한편 미국 및 중국 등 해외경제의 회복으로 수출이 크게 증가한 것과 더불어 자택 내 소비의 확대가 플러스 요인이 되는 등 기업의 체감경기는 「K자형 회복」의 경향이 한층 강해졌다.

국내경기는 감염 확대 방지 대책으로 인구 유동 억제를 도모하여 4개월만에 악화되었다.

< 향후의 전망 : 일시적으로 악화되나 서서히 상향 >

향후의 국내경기는 일부 지역에서 6월 20일까지 연장되는 긴급사태선언 및 만연방지 등 중점조치의 계속·해제 타이밍 등이 경제활동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하계상여 감소 및 원재료 가격의 상승 등은 하향 요인이 될 것이다. 또한 반도체 부족 및 컨테이너 부족으로 인한 생산 정체 등의 공급 리스크는 악재가 될 수 있다. 한편 백신 접종 확대에 의한 경제활동의 정상화 및 해외 경제 회복, 자택 내 소비의 증가, 5G 본격 보급 등은 플러스 요인이 될 것이다. 단 각 회사의 업적에 대한 「K자형 회복」의 동향 및 도쿄올림픽의 행방 등은 주시할 필요가 있다.

향후는 하방리스크도 많아 일시적으로 악화되나 서서히 상향해 갈 것으로 보인다.



※ 경기예측 DI는 ARIMA 모델에 경제통계를 더한 Structural ARIMA 모델로 분석. 점선은 예측치의 폭(예측구간)을 나타내며, 예측치±2표준편차로 산출